주 일 예 배

오전11시 예배인도 이진우 목사

찬 양	Praise	다 같 이
통성기도	Prayer	다 같 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Hymn 23	다 같 이
기 도	Prayer	이현미 집사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 도 자
성 경	사무엘하 5:1-10	인 도 자
설 교	믿음은 결과보다 과정에 승부를 거는 것입니다.	이진우 목사
찬송과봉헌	Hymn 377	다 같 이
축 도	Benediction	이진우 목사

■ 다음주기도 : 안미나 집사

예 배 와 모 임 안 내

주 일 예 배	오전 11시
새 벽 기도회	오전 6시(월-금)
가정교회예배	각 가정교회별로

교 회 를 섬 기 는 이 들

목 회 사 역	이진우 목사	
행 정 사 역	남관희 집사	안찬호 성도
선 교 사 역	서정길 장로	이오현 집사
미디어 사 역	박종갑 장로	윤지호 집사
실 버 사 역	김상안 집사	김정순 권사
친 교 사 역	정순영 집사	이현미 집사
찬 양 사 역	이오현 집사	안미나 집사
양 육 사 역	Kaitlan Hronek	

【자유교회 Vision 소개】

■ **자유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유일한 담임목자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동역자입니다. 자유교회는 사람보다 예수님이 세상에 알려지길 원합니다. 교회의 행정과 운영에 있어서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할 것이며 실험할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란 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즉 교회란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가 부패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교회 건물이 노후했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인 성도가 교회답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를 통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회복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교회가 지켜야할 지상최대의 명령입니다. 가깝게는 지역사회로부터 크게는 세계 각처에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실제적으로 헌금의 50%를 선교와 구제 그리고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일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 받은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믿는 자에게는 자녀의 권세를 회복케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 모든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 권세와 문화에 좌우되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2008년 1월 27일 제78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LIBERTY METHODIST CHURCH

자 유 교 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교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교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교회

자유교회 Liberty Methodist Church

716 E 56TH ST. TACOMA WA 98404

TEL (253) 661-5436, 227-1775

HOMEPAGE: WWW.JAYOOCHURCH.ORG

E-MAIL: GRACEOFJESUS@COMCAST.NET

◘ 금주의 말씀요약 ◘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십여 년의 광야생활, 그리고 7년 6개월 동안의 반쪽짜리 왕에서 드디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일찍이 소년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은 결코 서두루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늦지 않으신 때에 다윗을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이셨습니다.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 다윗에게는 평안함과 형통함만 있을 것 같은데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이루어 졌다고 해서 그 이후의 삶이 더 이상의 문제나 갈등, 고난으로부터 면제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해서, 이제 모든 위기와 역경으로부터 완전히 면제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십 수 년의 광야의 절망과 아픔을 결코 낭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삶에 최고의 실패라 할 수 있는 밧세바와의 사건도 하나님은 결코 낭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치명적 실패를 통해 다윗을 새롭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는데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통해 얻은 솔로몬으로 이스라엘의 왕조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십니까? 세상 모두가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오히려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종종 성공할 때, 형통할 때, 승승장구할 때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착각하며 살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 더욱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과로만 그리고 그 결과의 성공의 때에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철저한 착각입니다. 눈에 드러난 결과에만 집착하는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성취나 업적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시지 않으십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은 성공을 이루는 데 있기보다는 성실하게 사는 데 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 성공할 때, 우리는 그 성공으로 인해 타락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을 목적으로 삼으면 그 성공 때문에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살아가면 실패도 영원히 실패로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실패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공도 실패도 그 사람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광야의 시절보다 더 감당하기 힘든 위기와 시련이 다윗에게 닥쳐왔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문제와 위기 가운데 다윗은 더욱 강성하여 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하5:10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위기와 고난 그리고 문제가 없었기에 점점 강성하여 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모든 고난과 문제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육신을 가진 인생은 다 같습니다. 산 너머 산. 문제 끝에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 없는 사람보다 더 힘든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점점 강성하여지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갈등과 고난 그리고 역경을 통해 우리 삶의 패턴을 바꾸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이것만 지나면, 저것만 넘기면 하며 살다가 결국 죽고 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실패와 고난을 낭비해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어떠한 실패와 고난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를 성숙시키시길 원하십니다. 그것을 통해 우릴 연단하시길 원하십니다.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은 "누가 사람이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상을 믿는 것은 단숨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일평생에 걸친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결과만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내 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의 일들은 결국 대부분 길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길에서 사랑하고, 길에서 싸우며, 길에서 용기를 얻고,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길에서 인품이 바뀌고, 또한 길에서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길을 사랑하는 사람은 인생 내내 행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상만 사랑하는 사람은 정상에 오르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올라가도 오래 있기 힘듭니다. 길을 사랑하면 오르는 길도 행복하지만 내려오는 길도 행복하고, 특별히 길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점점 강성하여지는 축복이 있기를 이 아침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유교회 소식】

1. **자유교회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며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기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갑시다.**
2. **신년 가정심방을 1월로 마감하려고 합니다. 심방을 원하시는 분은 일자와 시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다음 주 예배 후 사역보고 및 월례회의로 모이겠습니다. 사역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김갑년 권사님 자제분이 사고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윤지호 집사님이 용자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사업으로 인해 장기간 결석중인 최정아 성도님의 예배 참석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오늘도 식탁교제를 위해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지난주 헌금통계

십 일 조:	$160.00	
감사헌금:	$320.00	
주일헌금:	$0.00	
특별헌금:	$0.00	**합 계: $480.00**

중보기도 제목

- 우리교회에 주신 오천 명을 먹이는 비전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옵소서.
- 장애우를 돕는 밀알선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장애우들에게 풍성하게 하옵소서.
- 샤론의 집을 통해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한인여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 월드비전을 통해 우리교회가 돕는 어린 생명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인도하옵소서.
- 도산 경로 대학을 통해 노년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